

‘개헌론-불가론’ 분란 휩싸인 한 지도부

안상수 “국민 약속” 홍준표·나경원 “시기 늦어”

친이게 개헌특위 구성… 민본21 의총 연기 전의

개헌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헌론과 불가론’이 충돌했다. 홍준표, 나경원 두 최고위원이 개헌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나서자 안상수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홍 최고위원이 “18대 국회 들어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미뤄오다 임기 말에 말하고 있다”면서 “차기 주자들이 가시화되는 상황

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1987년 개헌 상황을 언급한 뒤 “개헌은 단순히 정치권 이해관계로 다뤄서는 안 되고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상수 대표가 “개헌의 총 때 실컷 발언하자”고 제동을 걸었으나 이번에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홍 최고위원 발언에 공감한다”며 개헌을 논의를 넘겼다.

나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고 모양새도 안 좋다”며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 논의는 사실상 ‘우리끼리, 우리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줄세우기가 될 수 있어 국민의 굽지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당내 소장그룹인 ‘민본21’은 이날 오전 모임에서 의총을 연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물가 급등과 민생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제로 의총을 여는 데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 연기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당내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40여명이 지난 18일 저녁 이재오 특임장관과 만나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었다. 오는 25일 개헌 의총을 앞두고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되며 때문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함께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 사업 제8공구 폐기를 맵시지에 서 토양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진보신당·사회당·시민사회

연내 ‘진보 대통합당’ 만든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가 연내 ‘진보 대통합당’(가칭)을 창당키로 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 정당 대표와 민주노총, ‘진보정치 세력연대 교수모임’, ‘진보대통합 시민사회’ 등 단체 대표들은 20일 국회 귀빈석당에서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

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첫 대표자 연설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올해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

화 실현, 비정규직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민중 생존권 강취, 생태환경 보존 등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 대통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 대통합이 상반기 안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민노당과 진보신당 양당 간 통합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우 대표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광주 남구 민주 의원들 ‘기부경쟁’

광주 남구의회 민노당 소속 의원 2명이 올해 의정비 인상분을 기부한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소년 소녀가장 돋움에 나서 ‘기부경쟁’이 펼쳐졌다.

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금 1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구애에 위탁했다.

이에 앞서 19일 민노당 소속 의원 2명은 올해 의정비 인상분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매달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색이던 남구의회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노당 의원 2명이 당선되면서 경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조호권 ‘지방의회 조례 평가’ 우수상



조호권 광주시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9년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제·개정 의결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학제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와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감안해 조의원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조호권 의원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약속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 청년위원장 선거

정동영계 이상호 당선

민주당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정동영계인 이상호(사진)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20일 지난 18일부터 이를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청년위원장 선거 결과, 정 최고위원의 조직책인 이 후보가 1281표를 획득, 손학규 대표계의 서양호 후보(1272표)를 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과 친노·486 그룹이 내세운 정환석 후보는 1157표였다. 손학규·정세균계의 단일화 실패가 정동영계의 승리로 귀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정 최고위원은 전대 후처음 치러진 전국 규모의 당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힘을 받게 됐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여성위원장 선거에서는 유승희 전 의원이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고, 노인위원장 선거에선 선진규 후보가, 대학생위원장 선거에선 손한민(명지대)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조호권 의원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약속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20일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동영 최고위원이 ‘재원 없는 복지정책은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부유세 도입 및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일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모두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며 부유세 도입 및 부자

화학 산출 근거를 마련,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추가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성장, 안보 등 타 분야와의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이번주중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을 마친 뒤 이달 말까지 보편적 복지정책의 큰 그림과 재원조달의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2월 초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민주당안을 마련,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 및 통합성, 현실성, 완벽성을 갖춘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소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과

제2 ‘부자증세’로 대권도전 승부수?

토론회서 부유세 도입 주장… 당내 논란일 듯

증세를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0.58%의 개인과 1조원 이상 재벌에게 매년 한 차례 부유세를 거둬 13조3천억원을 확보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해 복지정책 세를 부과해 10조원을 추가로 거둬 복지 정책에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비주류 모임인 혁신연대를 비롯, 당내에 부자증세론의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증세 없는 복지론’을 내세우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등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별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학의 귀족사주학? 우주의 천시를 풀어한 귀족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죽을 하고도 모방했다 하여 이를 부처진 귀족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 초급	3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 고급	3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	사주명리초급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 1일부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 1일부터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목록 감면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형/경혈경락/ 비만침법/마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종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해외 사용 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 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을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원서교부 및 접수처

www.kwaway.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국가
공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